

제주도특별법 개정 ‘초읽기’

13일 국회 법사위 개정안 의결... 본회의만 남아
발의 2년만의 성과... 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져
청정 자연환경 관리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통과를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12월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기능 확대·보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도시사의 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권한이 같음을 명시했다.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뤄 조성되어야 함을 목적규정에 명시했으며, 국자알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과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사가 투자 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 투자금액·투자 이행 기간 등을 고시하고·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내용이 신설됐고,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10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 제주도가 추진 중인 7단계 제도개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논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방위 절충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 제주 국비 확보와 제주4·3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내 시험장은?”... 수능 예비소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시험 설명회를 들은 후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오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내 14개 시험장서 수험생 7070명 응시 예정
유의사항 주의 요구... 수험표·신분증 등 지참도
도교육청, 수능 당일 학생선도활동·캠페인 전개

계를 돕기 위한 진로상담과 생명존중 교육, 학생 맞춤형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오름 탐방, 요가 교실 등의 다양한 체육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늘(14일) 제주도내 시험장 14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올해 제주지역 응시자는 전년보다 430명 줄어든 7070명이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 영역으로 시작된다. 이어 2교시 수학(오전 10시30분~12시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10분~2시20분),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오후 2시50분~4시32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오후 5시40분) 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영어 듣기평가는 오후 1시10분부터 25분간 이뤄진다.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된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 인근에서 차량을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의 주의도 요구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

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엔 시험장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와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와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학생생활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수능 이후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진로 설

이석문 교육감은 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에게 격려 편지를 전하며 응원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편지에서 “희망의 불을 밝혀 꿈의 길을 당당히 걸었다”면서 “그 길은 여러분의 미래를 격려하는 따뜻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제주도, 오등봉·중부근린공원 대상 추진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제안서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장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21년 8월 11일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봉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시행방식은 도에서 비공영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

확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공고 안내와 공고지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해 검토를 마쳤으며 공원내 비공영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립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구,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7면... 불복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 9면...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

우리 함께 걸어요.
50만 제주시민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여
희망과 행복의 길을 열어요.

우리 모두의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